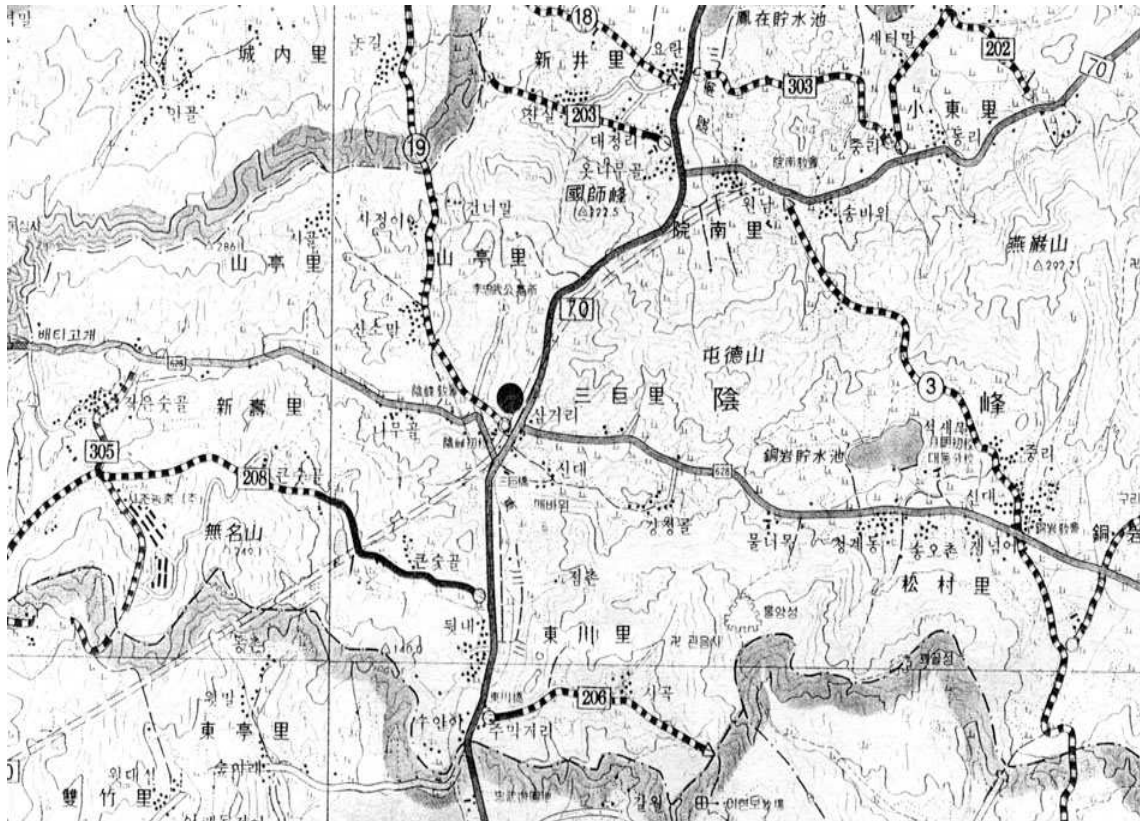


동천리·東川里

동천리는 음봉면의 한 마을로 1구와 2구로 나뉜다. 1구는 뒷내라고 부르고 2구는 주막거리라고 부른다. 동천리의 총인구는 360명으로 남자는 178명, 여자 177명이다. 총 102가구가 살고 있으며 그 중 8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동천리는 본래 신창군 일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시곡, 점촌리, 후천리를 병합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동천리 위치도>



☒ 뒷내, 주막거리, 수안이 마을

뒷내(동천 1구)마을은 옛날부터 마을 뒤로 냇가 있고 냇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후천리라고 하였으나 그 후 자연 재해로 인하여(1950년경) 하천을 동쪽으로 새롭게 하여 동천리라고 하였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새마을 운동 추천 우수 마을 표창도 받았으며 음봉면에서 제일 먼저 마을회관도 건립하였다고 한다.

수안이, 주막거리(동천 2구)

동천리2구는 수안이 시궁골, 주막거리로 분리되는데 명칭의 유래는 옛날 동천천이 앞으로 흐르고 그 냇둑에 숲이 우거졌는데 마을이 숲안쪽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숲안이가 수안으로 변형되어 불리게 된 것이다. 시궁골은 시곡이라고도 하며 주막거리 북쪽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엔 무량산으로 옛조상들의 얼이 가득 담긴 산성이 있고 북으로는 용이 여의주를 입에 물고 하늘을 나는 형상이라 하여 비룡산이며, 전 윤보선 대통령의 묘가 있어 더 유명한 곳이다. 옛날에 길옆 주막집 옆에 약 700~800년 된 마을 수호신인 느티나무밑에 복자바위가 있었으나 1973년경 천주교 박물관으로 옮겨 갔으며, 마을 앞쪽으로는 큰 저수지와 수안으로 산세와 호수가 한데 어우러져 47가구가 살고 있는 아주 살기 좋은 이상적인 시골 마을이다.

<조사당시 동천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면소재지에서 70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동천2리는 뒷내에서 약 0.8km 남쪽으로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다. 45번 도로에서 206번 도로로 나뉘어지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2) 현 황

뒷내의 총인구는 192명으로 남자 89명, 여자 103명이다. 총 55가구가 살고 있으며, 그 중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막거리의 총 163명으로 남자 89명 여자 74명 총 47가구가 살고 있으며 9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분포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뒷내 - 후천	192명	89명	103명
주막거리	163명	89명	74명

- 생 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뒷내 - 후천	100%	75%	25%
주막거리	100%	98%	2%

농경지 현황은 뒷내가 총 47ha이고 주막거리는 37ha로 조사되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뒷내 - 후천	47ha	29ha	18ha
주막거리	37ha	24ha	13ha

- 영농기계 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뒷내 후천	40	6	7	15	3	30
주막거리	13	2	7	6	5	15

문화시설에서는 회관이 1개소씩 있으면 그곳에 앰프 농악놀이 악기도 비치되어 있다

- 문화 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뒷내 후천	1	1	1조	
주막거리	1	1	1조	

- 연령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뒷내 후천	12	25	32	25	34	26	20	16	2
주막거리	14	13	27	22	18	23	26	15	5

- 성씨별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남씨	기타
뒷내 후천	10%	20%	20%	50%
주막거리	17%	22%		61%

- 학생 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뒷내 후천	6	7	4	3
주막거리	3	3	2	3

- 최고령자

1리는 정정채씨로 85세이시고, 2리인 주막거리는 이우훈씨로 93세이시다.

- 호당 평균소득

1리 년/800만원, 2리 년/1,000만원

3) 자연경관

뒷내는 음봉면에서 거의 남쪽 끝마을로 마을 왼쪽으로는 산이 둘러싸여 있고 오른쪽으로는 논이 펼쳐져 있다. 마을 주위로 동천천이 흐르고 있다.

동천2리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수안이 남쪽으로는 저수지가 있으며 마을 왼쪽으로
는 논이 조금 분포하고 있다. 마을 안으로는 동천천이 흐르는 물줄기가 있다.

4) 마을변천과정

동천리는 본래 신창군 일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시곡, 점촌리, 후천
리를 병합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 동천리로 통합된 후 두 마을로 나뉘어져 뒷내 아래 마을을 2구로 정해 주막거리 (수
안이)로 불렀다.

5) 입 향

마을에는 의령 남씨들의 집성촌으로 현재 13대째 살고 있으며, 남씨중에 처음 터를 잡은 사
람은 현조 판서를 하신 13대조가 김포에 있다가 이곳으로 낙향하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이
다. 그러나 마을에 원거인은 남씨가 아닌 전주 이씨로 알려지는데 그 이유는 남씨가 이곳에
들어와 살 때 살던 기와집을 뜯다보니, 처음 전주 이씨가 살았다는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
다. 지금 그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남씨가 들어오기전부터 기와집은 이미 있었으며,
그곳에 의령 남씨가 들어가 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의령 남씨가 이곳에서 13대째
살고 있으니 마을의 형성은 4~5백년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동천2리는 옛날 변씨들이 터를 잡고 처음 뿌리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변씨가 6대째 살고 있으니 약 18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측된다.

6) 지 명

- 점 말 : 뒷내 북동쪽 산기슭에 있는 마을.
- 물한산 : 동촌리와 송촌리 그리고 탕정면 명암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
- 숫 골 : 뒷내 뒤편에 있는 골짜기. 숫을 구웠음.
- 음봉천 : 산정리 금산에서 발원하여 삼거리에서 동천이 되고 염치읍 석두리에서 염티 저수
지를 이룬다.
- 소쇄당터 : 뒷내 앞 큰길가 쪽에 있는 터. 숙종때 남두추가 세우고, 남구만이 기를 지었음.
매우 화려했는데 그 자손들이 소홀히 수호해서 북더기 따위를 쌓아 두었다가 몇 해 전에 거
지들이 추위를 피하여 그 속에 들어가 놀다가 불을 내서 전소되고 이제 밭이 되었음.
- 관자나무 : 소쇄 당터 옆에 있는 느티나무. 네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고,
그 옆에 아름다운 소쇄당이 있어서 길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들러 놀다 갔는데 흥선
대원군이 그 친산을 덕산에 쓰고 성묘 다닐 때 으레 이곳에서 쉬어간 관계로 그 나무에다
대부 벼슬을 봉하였는데, 대풍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현재 그 동치만 남아있음.
- 시궁골 : 주막거리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 주막거리 : 뒷내 남동쪽에 있는 마을.
- 삼형제골 : 옷골 모퉁이에 있는 골짜기.
- 웃 골 : 을시궁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윤씨의 묘가 있음.
- 개고개 : 점말에서 옷골로 넘어가는 고개.
- 꽃밭모랭이 : 주막거리 왼쪽 산 모퉁이. 그 아래에 반석과 느티나무가 있음.
- 반석거리 : 꽃밭 모랭이에 있는 길거리. 길이 12척, 너비 7척의 큰 반석이 있고, 그 둘레에
늪은 느티나무 6주가 서 있어서 길가는 사람의 쉬는 터가 되어 있음.
- 충무유원지 : 야외풀장과 숙박시설이 완비된 가족단위 휴양소로 각종 조류 및 동물들이 사
육되고 있는 휴식공간.

7) 전설

이 마을에서 전해지는 전설은 조사되지 않았음.

8) 전통놀이 및 대표적인 집단행사

마을에서는 음력 10월 열나흘날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때는 1구만이 아니라 2구와 같
이 지내고 있다. 산제사를 지내는 곳은 1구 뒷산에 모골이란 곳에 산지장골이 있어 그곳에
제사당이 만들어져 있다. 이마을도 산제사를 엄격하게 지내는 편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소홀해지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사고도 많이 나고 안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다시 정성드려 산제사를 지내니 그후로는 사고가 적어졌다고 한다. 산제사를 지낼때는 소머리를 놓고 지내며 재미있는 것은 어느 제사에서나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인데, 이 마을에서는 산제사때 술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 그렇게 된 유래는 예전에 술을 올리기는 했으나, 어느해 산제사를 지내기 위해 올라갔더니 나무꾼이 술을 먹고 죽어 있더라는 것이다. 그때는 술독을 산제당 옆에 파묻어 술을 만들어 놓고 썼는데, 그곳에 나무를 하러 갔던 나무꾼이 그 술을 먹고는 그만 죽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일이 있은 후 술은 쓰지 않고 대신에 물을 올린다. 예전에 산제사를 지낼때면 음력 시월 그믐날 생기복덕에 닿는 사람을 모두 뽑아 15일동안 외출을 금지했고, 10월초 부터는 외부인도 출입을 못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지냈다. 그러나, 지금은 형식적인 면이 더 많다.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는 산제사를 지내기 위한 대동계와, 마을 사람들이 상을 당하면 하는 상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2구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동천2리는 산신제는 1구와 같이 지내고 있으며, 제사 지내는 사람을 7명정도 뽑는데 그중에 3명이 제사를 지낼 때도 있다. 마을에서 하고 있는 계로는 여러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초상이 났을 때 하는 상조회와 우친계등이 있다. 모든계는 1구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이 마을에서 특별히 소개 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10) 종교단체

관음사 음봉면 동천리 산19번지 주지 정점례 종파 : 조계종

공덕사 음봉면 동천리 5-3번지 주지 방춘화 종파 : 총화종

11) 공장현황

이 마을에서 가동중인 공장은 조사되지 않았다.

12) 마을의 특성

이 마을은 새마을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마을중의 하나인데 이 마을의 자랑거리중 하나인 마을회관도 그중 하나로 음봉면에서 가장 먼저 건립한 것으로 이름이 높다. 게다가 마을 분위기도 마을에 내가 흐르는 옛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매우 인심이 좋고 아주 살기 좋은 아산의 한 마을중에 하나이다.